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6. 2. 13(금)

미 주

- 캐나다, 산골학교 총기난사...10명 숨지고 25명 부상
 - 2.11 언론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산악마을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되어 역사상 가장 참혹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 보도

유럽

- 이탈리아, 올림픽 개막 앞두고 사이버 테러 시도 차단
 - 2.5 이탈리아 정부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와 호텔 등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시도를 차단했고,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장 전역에 600여 명의 보안요원을 배치했다고 발표
 - ※ 주밀라노 총영사관은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있는 지역이 북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마약 거래 장소라며 현지 보안과 관련해 안전에 유의할 것을 경고

중 동

- 이스라엘, 테러범 2명 국적 박탈하고 팔레스타인에 추방
 - 2.11 언론은 이스라엘에서 테러를 저지른 2명이 국적을 박탈당한 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추방되었으며, 2023년에 개정된 테러범의 시민권 박탈 근거를 마련한 '시민권법 개정안'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라 보도

아프리카

- 민주콩고, IS연계 무장단체 공격으로 최소 20명 사망
 - 2.10 언론은 민주콩고에서 IS와 연계된 민주군사동맹(ADF)이 북키부주 루베로 지역의 마을을 공격하였으며, ADF는 올해 들어 북키부주 지역에서 최소 62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보도
 - ※ ADF는 1990년대초 우간다에서 조직되어 민주콩고로 옮겨 활동, 2019년부터는 IS의 분파를 자처하며 민주콩고 동부에서 살해와 납치 등을 일삼고 있다고 부언

아.테

○ 호주 경찰, 이스라엘 대통령 살해 협박 10대 기소

- 2.5 언론은 호주 연방경찰이 호주 방문을 앞둔 이스라엘 대통령을 겨냥한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19세 남성을 기소했으며, 同 용의자가 美 대통령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도

※ 언론은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이 시드니에서 대규모 평화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, 호주 경찰은 시드니 도심과 동부에서 시위를 제한하고 보안을 강화했다고 부언

○ 파키스탄, 시아파 모스크 폭탄테러로 36명 사망

- 2.8 언론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곽의 한 시아파 모스크에서 일어난 자살 폭탄테러로 인해 최소 36명이 사망했으며, 현지 당국이 IS 조직원 4명을 테러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보도

※ 언론은 IS가 텔레그램을 통해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으며, IS·TTP 등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시아파를 상대로 테러 공격을 이어왔다고 부언

○ 韓, 허위 폭파신고 고교생에 손해배상액 최대로 청구

- 2.9 언론은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인천 대인고 폭파 협박 게시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작성한 10대에게 7,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, 이번 청구액이 공중협박죄 신설 후 최대규모라고 보도

※ 당시 경찰 379명, 소방 232명, 군 9명 등 600여명 이상이 약 64시간 투입되었으며, 출동수당·동원차량 유류비 등이 소송액에 포함되었다고 부언

○ 韓, BTS 광화문 컴백 공연 대비 인파·테러 대응 총력

- 2.9 언론은 경찰이 3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복귀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흥기 난동, 테러 등에 대비해 구역별 인파 관리*, 경찰특공대 배치, 강력팀 투입 등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도

* 행사장 일대를 코어존·핫존·웜존·콜드존 등 4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15개 세부 구역으로 세분화해 구역별 총경급 책임자를 지정, 현장 상황을 밀착 관리

역사속 테러사건

'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 前 공안 대상 차량돌진 테러

- '08.8.4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막 나흘 전 신장 위구르 자치區에서 공안 소속 국경경비부대를 겨냥한 차량돌진 테러가 발생, 16명이 사망하고 16명 부상
 - 테러범 2명은 트럭 두 대에 분승해 국경경비부대로 난입, 훈련 중인 부대원 10여 명을 덮친 후 하차해 흉기를 휘두르고 수류탄을 투척
- 중국 정부는 “올림픽에 대비 '08.1~6월 신장 위구르 자치區에서 테러 기도 5개 조직 82명을 검거하고 훈련 거점 41곳을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했음에도 同 사건이 발생했다”라며 당혹감 표출
 - ※ 한편,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區 무장 분리·독립 운동조직인 ‘東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(ETIM)’의 올림픽 겨냥 테러 첩보를 사전에 입수했음에도 차단 실패
- 同 사건은 올림픽 개막을 앞둔 중국의 대테러 능력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올림픽 기간 중 추가 테러에 대한 불안감 지속

테러 상식

< 東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(ETIM) >

- (목표) 중국 신장지역內 이슬람 국가 건설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2.9), 영국('16.7), 중국('03.12)
- (결성·규모) '97.8월·아프간 약 350명, 시리아 1,000~3,000여 명 활동 추정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·탈레반,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, 東투르키스탄 해방기구
- (주요테러) '13.10 베이징 텐안먼 광장 차량 돌진 공격(5명 사망, 38명 부상)
 - '14.3 윈난성 쿤밍市 기차역에서 위구르族 무장세력의 흉기 난동(170명 사상)
 - '14.5 신장 우루무치市 재래시장에서 차량 폭탄테러(122명 사상)
 - '16.8 키르기스스탄 비쉬케크 주재 중국 대사관에 차량 자폭테러(3명 부상)